

# 성난 촛불 민심, SNS로 소통하다

**퇴진 촉구 광주·전남 폐북 10개 이상 개설**  
**집회·뉴스·정보 공유 '웹자보' 빠르게 전파**  
**광주교대 '카카오톡 투표'로 동맹휴업 가결**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열의를 전파하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지역에서만 모두 10개 이상의 '박 대통령 퇴진' 촉구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돼 집회와 관련 뉴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80~90년대 집회나 시위 소식을 알리던 '대자보'와 '유인물'은 '웹자보'로 대체됐다. 촛불집회 일정과 함께 각종 패러디가 함께 담긴 웹자보는 SNS 이용자들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개인들도 이 같은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공유하면서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박근혜퇴진 광주소식'은 박 대통령을 퇴진을 촉구하는 광주 청년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영상과 사진, 글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와 '박근혜정권퇴진 목표운동본부' 등 광주와 전남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각종 소식을 전파하고 있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모임인 '1318광주희망'도 지난 20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진행한 '이게 나라냐?! 광주청소년집회' 소식을 알리는 등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교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진행된 전교생 대상 '박근혜 퇴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동맹휴업 및 공동행동' 찬반 투표를 '카카오톡 익명 투표'로 진행했다. 갑작스럽게 동맹휴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서 투표소를 별도로 만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임용고시를 마친 4학년 학생들과 보조 교사로 일선 학교에 나가 있는 3학년 학생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익명 투표'는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전교생 1390명 중 1186명이 참여, 85%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를 앞두고 광주교대 학생들은 동맹휴업 찬반 투표 참여 독려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릴레이 페이스북 대자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동맹휴업 찬반 투표는 투표인원 1186명 중 90.3%(1071명)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광주교대 학생 1390명은 25일 전국 10개 교육대와 함께 동맹휴업에 나서고,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4일 오후 1시에는 동맹휴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대 민주열사 고(故) 한상용 열사 종이학 접기', '학내 일인시위', '포스트잇 한마디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촛불집회 뜨거운 금남로** 2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라며 합성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의료폐기물 몰래 버린 요양병원들

광주시, 26곳 35건 단속

의료폐기물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광주지역 종합병원(100병상 이상)급 요양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최근 한달 간 특별사법경찰과 시·구 합동단속을 벌여 요양병원 53곳 중 의료폐기물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2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 병원 2곳 중 1곳가량이 관련법을 어긴 셈이다. 이들 병원이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35건에 달했다.

광주시는 메르스와 자카바이러스 발생 등 시민 불안이 커지고 의료폐기물 노출에 따른 노인들의 2차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해 노인 요양병원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북구 A요양병원 등 16곳은 중환자 가래 등 인체 분비물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화장실 변기를 통해 몰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금속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요양병원 2곳도 적발됐다. 특히 서구의 한 요양병원은 임상병리

실 폐수를 매주 한차례 이상 화장실 변기에 무단 방류했다. 이 요양병원 등 2곳은 폐수 위탁처리 실적 없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보관 기간 초과, 보관시설 소독장비 미구비,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의 일반 의료폐기물 처리, 전용용기 재사용 등 관리소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인체 분비물 부당 처리,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방류 병원 등 18곳은 의료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하고 폐기물 관리소홀 병원 16건 등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종합병·의원과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점검에서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병원 종사자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 교육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도심 제한속도 50km로 낮추면 교통사고 최대 9000여건 줄어든다”

교통문화연수원 세미나

광주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통안전공단 등 주관으로 '광주 도심 속도 하향 조정 50-30 세미나'가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조선대 토목공학과 박상준 교수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변경했을 때 효과 예측 결과를 내놨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운전자 준수율에 따라 평균운행속도가 5~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는 19명~53명, 중상자수 803명~2413명, 경상자수 1988명~6633명 감소했다. 사고건수도 2936건~9670건 줄었고, 연간 1457억~4450억원의 사고

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제한속도 시속 60km는 주변 토지이용과 도로의 기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적용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행 중 사망 사고가 심각하다며 제한속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도 2013~2014년 전국 118개 소에서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고건수 18.3%, 사상자수 26.7% 감소했다며 제한속도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편도 1차로 시속 60km 이내, 2차로 이상 80km 이내, 자동차전용도로 90km 이내로 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도심 하천 차량 화약류 폭발 40대 숨져

경찰, 폭발물 입수 과정 수사

신변 비판 목숨 끊은 듯

광주 도심 하천에 세워진 차량에서 화약류가 폭발, 차 안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숨졌다. (사진)

경찰은 숨진 남성이 공사 현장에 화약류(폭발물)를 취급한 점, 화약 뇌관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유서가 발견된 점에 미뤄 신변을 비판해 스스로 화약류를 터뜨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용된 폭발물이 특정되는 대로 숨진 남성이 폭발물을 입수하고 사용하는 과정

에 제 3자의 불법 내지는 관리소홀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풍영정 인근 천변 도로에서 코란도 승용차가 폭발음과 함께 불에 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승용차 안에서 차량 소유주인 윤모(4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이 심하게 불에 타 뼈대만 남아 있었으며 내부에서 화약 뇌관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서울지역 공사현장에서 화약류를 관리하며 발파 업무 등을 해오다가 2주 전 퇴사한 후 광산구 수완동 집으로 내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씨 사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그가 폭발물을 입수한 과정에 제 3자의 화약류 관리소홀 내지는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폭발물의 종류와 양, 폭발 장소 등에 따라 다수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데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 윤씨가 최근까지 근무했던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찰은 윤씨가 전날 오후 가족에게 핸드폰으로 "자녀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보냈고, 현장 주변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된 것을 토대로 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아내가 사기를 당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까지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럴려고 오토바이 훔쳤나... 150만원짜리 8000원에 팔아



○...오토바이를 훔친 20대 남성과 이 오토바이를 단돈 몇천 원에 고철로 사들인 60대 고철상 업주가 나란히 경찰서행.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10일 낮 12시54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PC방 앞에서 150만 원 상당의 B(24)씨 소유 오토바이 1대를

훔치고, 고철상을 운영하는 C(61)씨는 이 오토바이를 8000원에 사들인 혐의.

○...A씨는 PC방에서 훔친 오토바이 B씨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뒤 6만 만에 고철로 팔아치웠는데, 경찰은 "C씨가 충분히 훔친 물건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오토바이를 사들여 입건했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p><b>경매 골프장</b></p> <p>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p>	<p><b>경매 상가건물</b></p> <p>감정가 12억2천만, 최저가 12억2천만 무안군 삼향읍 / 대지 126평, 건물 289평 / 남악신도시내 위치</p>
<p><b>매매 오피스텔</b></p> <p>매매가 42억 조선대공대입구 / 10층 / 신축 / 대지 183평, 건물 600평</p>	<p><b>매매 상가건물</b></p> <p>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4억 5천만, 최저가 4억 5천만  
남구 주월동 / 총 4층 / 대지 71평 건물 177평 / 4층 안집 / 1종일반주거지역 / 코너 / 10m도로접

**교육 연구 시설**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6억 2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차차기 / 3기 6구

**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 부지**      감정가 11억 6천만, 최저가 11억 6천만  
서구 쌍촌동 / 대지 457평 / 2종일반주거지역 / 8m 도로접 / 주위 다가구주택 혼재 지역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연립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